벤처혁신연구 제3권 제1호(통권5호) http:www.kavi.or.kr
Journal of Venture Innovation, Vol.3. No.1, June. 2020, pp.47-66

창업 교육이 여대생의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

이성주(수원여자대학교 비즈니스과 교수)[1] 채병완(수원여자대학교 비즈니스과 교수)[2]

국 문 요 약

그동안 창업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지만 주로 일반적 관점에서 조명 되어져 왔다는 점에서 여성에게까지 적용하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대생의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창업교육 경험과 창업교육효과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이들 관계에 경력지향성과 기업가정신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여대생의 창업교육 경험보다는 창업실무지식 능력인 창업교육효과가 보다 창업의지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검증하였다. 따라서 대학에서 진행하는 창업교육에서 이론적 측면 보다는 창업실무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참여적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여대생의 창업의지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개인의 심리행동 특성인 경력지향성과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를 높이고 실제 창업으로 연결되는 결과를 가진다고 한다. 따라서 대학의 창업교육 진행시에 수강학생들의 경력지향성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수강생들이 자신의 창업역량을 스스로 이해하고 적극적인 창업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정부와 대학의 창업지원프로그램에서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하게 된다면 여성의 창업이 더욱 활발해 질 것이다.

■ 중심어: 창업의지, 창업교육효과, 경력지향성, 기업가정신, 여대생

Ⅰ. 서 론

"7포 세대"라는 신조어가 있다. 연애, 결혼, 출산, 집, 인간관계, 꿈, 희망을 포기했다는 의미의 신조어로 청년실업을 포함한 청년문제를 대변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독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청년실업률이 개선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속적으로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같은 한정적인 일자리를 두고 과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20대 청년들의 실업률은 2019년 8.9%로 2018년 9.5%보다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큰 이슈로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다(통계청 KOSIS 통계표). 또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은 2016년 67.7%, 2017년 66.2%로 낮아지다가 다시 2018년 67.7%

1) 제1저자 : 수원여자대학교 비즈니스과 부교수, kyh6812@swc.ac.kr
2) 공동저자 : 수원여자대학교 비즈니스과 부교수, cwb1222@swc.ac.kr
· 투고일 : 2020-03-05 · 수정일 : 2020-04-22 · 게재확정일 : 2020-05-14

로 정체된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및 대학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학생의 창업 및 창업교육에 대한 정책이 운영되고 있고 많은 학자들에 의해 창업과 관련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취업만이 미래를 이끌어 갈 성장 동력이 아니라 청년 창업이 또 다른 대안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및 대학의 창업관련 제도를 확대하여 미래의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관심과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대학의 창업교육은 대학생들에게 창업의 동기를 부여하고 취업시장의 돌파구 역할을 하여 국가경제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주요 대안이 될 수 있어 전국의 대학에서도 창업교육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창업기업실태조사를 보면 전문대졸 이상 창업자의 전공은 인문계열이 1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학계열 12.9%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창업자 성별 분포는 남성이 58.6%, 여성은 41.4%로 조사되어(창업진흥원, 2020) 남성 창업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 서비스업'과 일부 업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에서 남성 창업비율이 여성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창업이 남성 위주로 나타나는 현상은 창업 관련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2010년 49.6%에서 2018년 52.9%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성의 취업과 창업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높아지지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여성 주도의 소비구조(사회적 변화), 육아, 가사, 미용, 교육 분야 등 여성친화적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는 등 다차원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해 경제 활동 및 창업 등 기업 활동에 있어 여성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김선우 외, 2016).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학 졸업 후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여자 대학생의 창업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성의 창업은 국가경제 성장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고용의 다양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여성 창업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Naguib and Jmali, 2015), 창업교육은 예비 창업자 또는 잠재적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에게 사업을 계획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역량, 태도 등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이재석, 이상명, 2015). 특히 여성의 경우 대학에서 기업가정신 등 창업관련 교육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창업의지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동안 창업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지만 주로 일반적 관점에서 조명 되어져 왔다는 점에서 여성에게까지 적용하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혜원, 김효선, 2018). 이러한 상황에서 여대생의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창업교육 경험과 창업교육효과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이들 관계에 경력지향성과 기업가정신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첫째, 창업교육과 창업의지 등 연구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이론적 토대로 삼고자 한다. 둘째, 실증분석을 통하여 창업교육 경험과 창업교육효과에 따른 창업의지의 관계를 살펴보고, 경력지향성과 기업가정신의 하위 요인들이 창업교육효과와 창업의지의 관계에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셋째, 선행연구 내용과 실증분석을 토대로 여대생의 창업교육효과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시사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선행연구 고찰)

2.1 여성창업관련 연구

오지선 등(2016)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경제사회 측면에서 여성이 주변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기업가정신 및 창업환경에 대한 현황 분석과 이해도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기에 여성 기업가정신 및 창업에 대한 분석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다. 또한 여성의 창업활동에 있어서의 핵심 역량과 상대적 강점 및 우위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여성 창업분야 및 창업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

다(오지선, 김영환, 2016). 여성의 창업뿐 아니라 취업관련 지원프로그램도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청년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은 매우 많고 다양하지만, 이 중 청년여성에 특화된 사업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남혜명 2018). 이처럼 정부 및 대학에서 진행하는 창업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이나 연구에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또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공혜원 등(2018)은 여성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에서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 참여가 매우 절실한 상황에서 여성 기업가정신을 이해하기에는 기존 누적된 연구결과들이 매우 부족하고, 연구는 주로 일반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여성에게 적용하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다. 여성의 경우 자원에 대한 접근, 위험 평가, 성공, 정부지원에 대한 반응이 남성과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Farr-Wharton and Brunetto, 2007 ; 공혜원, 김효선, 2018에서 재인용).

여성 기업가정신 관련 연구들은 주로 여성 기업가가 되고자 하는 미시적 수준의 창업 동기에서부터 자본시장 접근의 불공정, 제도화된 사회적 가치 차별화 등과 같은 거시 수준에 이르기까지 여성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왔다(Naguib and Jmali, 2015 ; 공혜원, 김효선, 2018에서 재인용).

또한 선행 연구들은 여성 기업가의 연령, 교육, 동기, 결혼여부, 주요 사업 영역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나 정부정책, 재무 자원, 사회문화적 요인 등이 여성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 조명하고, 이들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안승철, 박소영, 김명화, 2005), 이외에도 여성 기업가정신을 제약하는 요인을 규명하거나, 여성 기업가정신을 가능하게 하는 관련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장성희, 김희자, 반성식, 2014).

2.2 창업의지 선행연구

오영미(2013)는 창업의지란 창업을 행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태도를 의미하며, 창업과정의 첫 단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사회심리학 분야 연구에서 의지와 행동의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창업 연구에 적용하는 것도 적합할 것이다. 따라서 창업의지는 창업이라는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Ajzen 외, 1980; 오영미, 2103). 강성일(2007)도 창업의지는 기업의 설립과 관련한 첫 번째 단계로 보고 창업의지가 없으면 기업의 설립이 되지 않으며, 창업행위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창업의지는 새로운 조직의 건설이라는 목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창업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우진(2013)은 창업의지는 현재 창업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 미래에 창업활동을 추진하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 기준이다. 개인에게 창업의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도출하여 어떻게 하면 실제 창업을 실행하여 진행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미래에 창업활동을 가능할 수 있게 하므로 창업교육의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여 창업의지 형성에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김진영(2018)은 창업 의지는 개인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 또는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정의하며, 창업에 대해 호감이 있으며, 창업을 수행할 역량이 있다고 지각하고, 이를 행동을 옮기는 성향이 높은 개인이 창업 의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지 분석을 위해 창업에 대한 긍정적 생각, 창업은 바람직한 일, 창업은 실패 위험에도 불구하고 매력적, 창업은 부의 창출에 기여, 타인에게 창업 권유 등 5가지 내용으로 정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3 창업교육효과 선행연구

대학 창업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중·고등학교에서 창업을 배우지 않은 상태이며, 창업 교육을 전공으로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개인적 관점에서 창업 교육의 중요성을 창업 교

육 초기에 학생들에게 전달하여 창업 교육이 왜 필요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애리조나 대학에서 1985~1998년 동안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3배 정도 많이 창업을 했고 창업을 하지 않은 학생도 창업교육을 받은 쪽이 그렇지 않은 졸업생에 비해 연간수입액이 27%, 자산이 62%나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이 취업을 많이 했고 취업 후에도 사회에 잘 적응해 자산도 많이 축적하였다(출처 : 애리조나 대학, Alberta Charney & Gray Libercap, 1985~1998. ; 한국 청년 기업가정신 재단, 2019).

신혜원(2017)은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사례 연구에서 창업교육의 목표는 '기업가정신을 깨닫는 것'으로 보며 창업교육의 필요성을 제언하였고, 창업교육으로 기업가정신 교육과 경제 개념을 포함시켜 기업의 활동 및 경제 환경에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정유선 외(2018)는 대학생의 개인특성과 창업교육의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에서 창업관련 지식과 기술은 창업자에게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창업동기와 창업의지를 촉진시키며, 대학생들의 창업의지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실무 형태의 창업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획일화된 창업교육보다는 창업자의 개인특성에 맞춰 단계별 창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업관련지식을 습득하게 운영할 경우 창업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정유선, 정화영 2018).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효과에 대한 요인으로 창업관련 실무지식에 대한 이해도로 정의하고 해당 내용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이해, 창업과정 및 환경 이해, 종업원 관리 이해, 재무관리 이해, 마케팅 이해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4 경력지향성 선행연구

경력지향성은 자신의 기술, 가치, 동기를 분명하게 인식한 뒤 특정한 직업을 선택할 때 일종의 지침으로 삼는 요소이다(이재열 2003; 홍정표 2014). 개인의 경력지향성은 개인의 미래 경력 경로의 결정을 인도하거나 제한하는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려운 선택 상황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며, 다양한 근무환경 속에서 실제 성과를 바탕으로 형성된 자신의 재능에 대한 인식, 기업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와 규범을 경험하면서 형성된 자신의 동기와 욕구에 대한 인식이다(서정훈 2013).

창업의지와 경력지향성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수가 있으며 이들 연구에서 경력지향성의 하위요인으로 설정한 내용을 보면, 홍정표(2014)의 경우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과 경력지향성, 사회환경적 요인을 제시하였다. 경력지향성 하위요인은 안전지향, 자율지향, 기술지향, 관리지향, 사업지향성 등 5개 요인을 제시하여 연구하였다. 이상호 외(2016)는 경력지향성과 창업의지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경력지향성의 하위요인으로 안전지향, 자율지향, 기술지향, 관리지향, 사업지향으로 구분하여 창업의지에 대한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서정훈(2013)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보다 구체화하여 개인적 특성의 측면에서는 성취욕구와 자기효능감, 혁신성과 개인역량을 제시하였으며, 경력지향성의 측면에서 안전지향성과 자율지향성, 기술지향성, 관리지향성, 사업지향성을, 그리고 환경적 특성에서는 창업 멘토, 개인의 네트워크, 사회적 인식 및 창업정책을 주요 변수로 제시하였다(서정훈, 2013).

본 연구에서는 경력지향성의 하위 요인을 안정지향, 자율지향, 관리지향, 사업지향 4개 요인으로 분석에 활용하려고 한다. 기존 연구에서 경력지향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기술지향성은 본 연구 대상자들이 여대생 이라는 점과 기술지향성을 반영할 전공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외하였다.

2.5 기업가정신 선행연구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연구 주제는 크게 창업의 기회가 현실화되는 과정, 창업자들이 기회를 포착

하여 활용하는 과정,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창업자의 행동으로 크게 나뉜다(Shane & Venkataraman, 2000; 김진영, 2018). 모든 창업의 기회는 창업자의 개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한 개인의 인지자원을 통해 파악되고 창업자의 주관적인 재해석을 통해 만들어지므로 기업가정신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이다(김진영, 2018).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는 기업가의 개인적 특성과 행동을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하게 기업가정신을 측정하고 혼재되어 있는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창업가 특성이나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인은 연구자들에 의해 여러 연구과정을 거쳐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의 3가지요소로 구성된다는 데에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Covin & Slevin, 1991; 이춘우, 1999; 강병오, 2011; 한규동, 2019). 또한 밀러(Miller)는 기업에서 기존 제품을 유지 보존하는 차원이 아닌 새로운 기회를 개척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서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이 대표적인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Miller, 1983 ; 김진영, 2018).

조휘열(2016)은 기업가정신의 특성이 교육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밝혔고 기업가정신의 하위요인 중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이 창업의지에 중요한 특징으로 예비 창업자들에게 창업의지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하였다(조휘열, 2016).

초·중·고 및 대학이나 직업교육기관에서 기업가정신 교육경험 있는 사람이 창업의지가 높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대학에서 기업가정신 교육경험이 있으면 창업의도가 더 증가한다(공혜선, 김효선, 2018).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도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인을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으로 정의하여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3.1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구성내용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응답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창업교육, 창업교육효과 및 창업의지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표본 추출은 2020년 4월에서 5월까지 S여자대학교 여대생을 대상으로 구글설문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한 166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온라인 설문을 이용한 이유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학의 수업방식이 대면수업이 아닌 온라인수업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부득이 온라인 설문을 활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창업의지, 창업교육효과, 경력지향성, 기업가정신,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일반 창업교육관련 질문 등 총 5개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제외한 4개 영역의 질문은 리커트의 5점척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설문분석을 위해 SPSS 18 버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요인분석, 신뢰성분석, 상관관계분석, 독립표본 t-test, 다중회귀분석, 매개분석, 조절효과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도출된 연구변수들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내리고, 선행연구자들의 측정항목을 수정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개인특성인 성취욕구란 힘든 일을 달성하려는 욕구, 장애를 극복하여 목표를 이루고자하는 욕구, 자신을 다른 사람들 보다 잘하고 싶은 욕구로서 자신의 능력 발휘를 통하여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욕구로 정의할 수 있다.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으로는 창업을 인식하는 경력지향성이 주요한 요인이며, 경력지향성에는 안

전지향성, 자율지향성, 기술지향성, 관리지향성, 사업지향성 등 다섯 가지의 하위 요인이 사용되어지나(홍정표, 2014)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이 여대생이며, 공업계열이 타 계열에 비해 매우 적은 조사대상 대학의 특성 상 기술지향성은 연구에서 배제하였다.

안전지향성은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려하고 걱정하여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성향이며, 자율지향성은 조직의 규정과 상사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며, 항상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사업지향성(business orientation)은 자신이 참여할 혹은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관련 분야에 호기심과 관심을 갖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습득하고자 노력하는 정도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관리지향성(management orientation)이란 특정한 조직에서 권한, 권력,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을 말한다. 그러므로 관리지향성이 강한 사람은 조직에서 관리자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통해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하고자 한다(윤방섭, 2004; 홍정표, 2014에서 재인용).

기업가정신실태조사 설문문항 중 각각 3개 항목 응답의 평균으로 정의하였다. Bolton과 Lane(2012; 김진영 2018에서 재인용)은 기존의 기업 레벨의 기업가지향성 설문 항목을 수정하여 개인 레벨의 기업가지향성 설문 항목을 검정하여, 개인 레벨에서는 기업가지향성은 혁신성, 위험감수성, 그리고 진취성의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였다.

각 설문항목은 혁신성은 '개선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성향'으로, 위험감수성은 '불확실성을 수용하며, 사업기회에 대한 탐험과 실험을 강조하는 성향'으로, 진취성은 '기회 포착에 뛰어나며, 경쟁자보다 앞서서 행동을 시작하는 성향'으로 정의하여 각 3개 문항을 설문에 포함시켰다.

<표 1> 설문의 구성 및 조작적 정의

구분		내용(조작적 정의)	문항수	참고문헌
경력 지향성	안정지향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성향	3	홍정표, 2014
	자율지향성	조직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성향	3	
	사업지향성	자신이 호기심과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습득하고자 노력하는 정도	3	
	관리지향성	조직에서 권한, 권력,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	3	
기업가 정신	혁신성	개선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성향	3	Bolton & Lane(2012) 김진영(2018)
	위험감수성	불확실성을 수용하며, 사업기회에 대한 탐험과 실험을 강조하는 성향	3	
	진취성	기회포착에 뛰어나며, 경쟁자보다 앞서서 행동을 시작하는 성향	3	
창업의지		개인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 또는 가능성에 대한 판단으로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수준	5	육창완, 2014
창업교육효과		실질적으로 창업을 행동하는 요소로서 창업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 사업계획서 작성, 마케팅, 재무 및 자본조달, 종업원 관리 등의 능력	5	육창완, 2014
인구통계변인		전공, 창업교육 수강 여부, 창업관련 프로그램 수강, 희망진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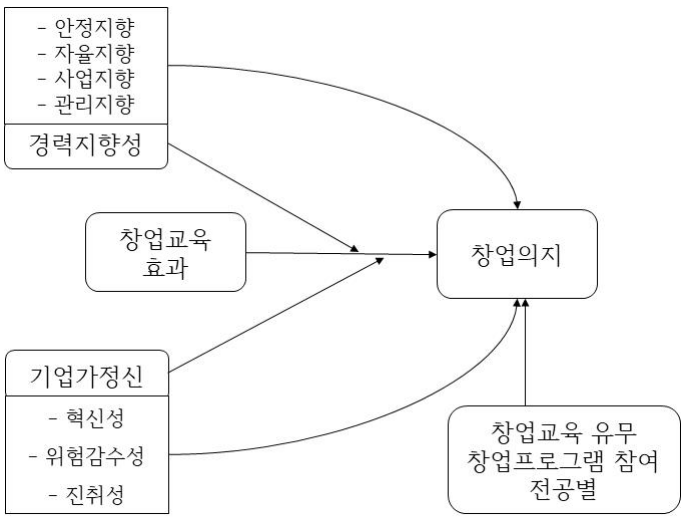
창업교육이란 예비 창업자 또는 잠재적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에게 사업을 계획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역량, 태도 등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이재석, 이상명, 2015), 창업지식은 심리적 조건들에 더해져 실질적으로 창업을 행동하는 요소로서 구체적인 창업관련 지식들을 의미한다(차화숙, 2012).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효과를 창업으로 행동하기 위한 실무지식이라고 정의하고 창업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 사업계획서 작성 능력, 마케팅 이해능력, 재무 및 자본조달 이해 능력, 종업원 관리 능력 등 5개 문항을 창업교육효과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창업의지는 개인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 또는 가능성에 대한 판단으로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수준이라고 정의하고 육창완(2014)의 설문 문항을 수정하여 창업에 대한 긍정적 생각, 창업은 바람직 한 일, 창업은 실패 위험에도 불구하고 매력적, 창업은 부의 창출에 기여, 타인에게 창업 권유 등 5가지 문항을 창업의지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조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창업교육 참여 여부, 창업프로그램 참여 등의 변인들은 통제변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이용하고자 한다. 분석에 이용한 설문 문항의 내용과 참고한 문헌에 대한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3.3 연구의 모형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선행연구를 통해 이론적 고찰을 한 결과 창업의지에는 창업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 특성인 경력지향성과 기업가정신이 주요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결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경력지향성의 세부 측정요인으로 안전지향, 자율지향, 사업지향, 관리지향을 설정하고, 기업가정신의 세부 측정요인으로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을 설정하였다. 다수의 창업관련 연구에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효과분석에서 경력지향성과 기업가정신을 개별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많았으나 경력지향성과 기업가정신의 조절효과를 동시에 연구한 결과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력지향성과 기업가정신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두 가지 요인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조절효과 검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창업교육 이후 창업을 행동으로 옮기는 구체적인 요소로서 창업교육효과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이 주요 연구목적이다. 또한 창업교육효과와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개인의 경력지향성과 기업가 지향성 요인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개인의 특성이 창업교육효과와 상호작용하여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다음 <그림 1>과 같이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의 모형

3.4 연구 가설 설정

본 연구는 창업교육 이후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창업실무능력을 창업보고서 작성능력, 마케팅능력, 재무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등으로 분류하고 이들 창업실무능력을 창업교육효과라고 정의한 후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인 경력지향성의 4가지 하위요인(안정지향성, 자율지향성, 사업지향성, 관리지향성)과 기업가정신 3가지 요인(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의 매개효과를 고찰하고,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교육효과와 경력지향성의 상호작용효과와 창업교육효과와 기업가지향성의 상호작용효과에 의한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창업교육효과는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창업교육효과와 창업의지에 대해 경력지향성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 창업교육효과와 창업의지에 대해 안정지향성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 창업교육효과와 창업의지에 대해 자율지향성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 창업교육효과와 창업의지에 대해 사업지향성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 창업교육효과와 창업의지에 대해 관리지향성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창업교육효과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경력지향성에 의해 긍정적으로 조절될 것이다.

3-1 : 창업교육효과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안정지향성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3-2 : 창업교육효과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자율지향성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3-3 : 창업교육효과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사업지향성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3-4 : 창업교육효과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관리지향성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가설 4 : 창업교육효과와 창업의지에 대해 기업가정신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4-1 : 창업교육효과와 창업의지에 대해 진취성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4-2 : 창업교육효과와 창업의지에 대해 혁신성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4-3 : 창업교육효과와 창업의지에 대해 위험감수성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 창업교육효과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가정신에 의해 긍정적으로 조절될 것이다.

5-1 : 창업교육효과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진취성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5-2 : 창업교육효과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혁신성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5-3 : 창업교육효과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위험감수성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3.5 신뢰성 및 타당도 검증

본 연구는 경력지향성과 기업가정신, 창업의지, 창업교육효과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은 요인분석과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요인분석은 요인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요인구조 변화 없이 보다 높은 설명력을 얻을 수 있는 직각회전방식인 Varimax 회전을 이용한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 시 각 요인이 전체 분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고유값은 1.0이상이면서 요인적재량이 0.5이상인 경우를 유효한 변수로 이용하였다. 신뢰성은 내적일관성법에 의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변수들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경력지향성에 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이 고유치 1.0이상인 4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경력지향성을 구성하는 4개 요인은 전체 분산의 74.59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문항 중 1개 문항이 전체의 신뢰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제거하였고 11개 문항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기업가정신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 동일한 요인화 조건에서 3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3개 요인의 누적 분산 설명력은 70.025%를 보였다.

창업의지와, 창업교육효과는 각 5개 문항이 1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창업의지 요인의 설명력은 62.888% 이며, 창업교육효과의 설명력은 68.752% 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지향성 11개 문항의 α 계수 값은 .791이며, 기업가정신 9개 문항의 α 계수 값은 .842, 창업의지 5개 문항의 α 계수 값은 .842, 창업교육효과의 α 계수 값은 .884로 나타나 변수들의 신뢰도는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0.5이상이면 충분하다(이재석, 이상명 2015)는 기준치를 충족하고 있다.

<표 2>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구분		내 용	요인 적재량	회전후 고유값 (누적분산)	α 계수
경력 지향 성	안정지향성	2) 장기적 고용안정 선호	.881	2.332 (21.119%)	.791
		1) 안정된 고용, 보수 선호	.850		
		3) 적정 연령 퇴직 보장 조직 선호	.805		
	자율지향성	2)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직업 선호	.884	2.129 (40.557%)	
		1) 자유롭게 일하는 것 선호	.811		
		3) 일, 시간 사용이 자유로움 선호	.690		
	사업지향성	2) 내 사업 구축 및 시작 꿈꾼다	.828	2.055 (59.241%)	
		1) 늘 내 사업 아이디어 구상	.811		
		3) 사업활동은 내 경력에서 중요	.721		
	관리지향성	2) 관리, 감독, 통제가 중요	.892	1.688 (74.590%)	
		3) 전체 조직의 책임 맡아 진행	.843		
		1) 타인을 감독하고 통합하는 역할 선호	<기각>		
기업가 정신	진취성	1) 경쟁자 보다 앞서 행동 시작	.803	2.264 (25.158%)	.842
		2) 기회 포착에 뛰어남	.801		
		3) 상대방 따라 할 행동 먼저 시작	.754		
	혁신성	3) 업무처리 시 새로운 방법 모색	.840	2.109 (48.591%)	
		2) 운영시 독창적 방법으로 해결	.827		
		1) 개선과 혁신 적극적 채택	.625		
	위험감수성	2) 새 아이디어 위험 불구 수용	.857	1.929 (70.025%)	
		1) 위험감수 긍정적 속성으로 간주	.760		
		3) 사업기회에 대한 탐구, 실험 강조	.631		
창업의지		3) 창업은 실패 위험에 불구하고 매력적	.838	3.144 (62.888%)	.849
		2) 창업은 나 자신을 위해 바람직	.834		
		1) 창업에 대한 생각해 보았다	.818		
		4) 창업은 부의 창출을 가져옴	.787		
		5) 타인에게 창업을 권유함	.677		
창업교육효과		5) 창업마케팅 관리에 대하여 이해	.882	3.438 (68.752%)	.884
		3) 종업원 관리에 대하여 이해	.869		
		2) 사업계획서 작성할 수 있음	.853		
		4) 창업재무관리에 대하여 이해	.831		
		1) 전반적인 창업환경 이해	.698		

Ⅳ. 실증분석

4.1 변수간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효과와 창업의지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표 3>과 같이 분석에 이용한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일부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창업의지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경력지향성 하위요인 중 사업지향과 관리지향성이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기업가정신의 3개요인 중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이 창업의지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창업교육효과와 창업의지 간에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은 회귀분석을 할 때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예상되어 진다. 회귀분석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각 독립변수들 간에 완전하거나 강한 상관관계가 있을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후 분석에서 이를 진단하는 분산팽창지수(VIF)를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표 3> 분석에 활용된 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구분	창업의지	창업교육	창업프로그램	전공_사회실무	전공_디자인	전공_식품	창업교육효과	안전지향	자율지향	사업지향	관리지향	진취성	위험감수성	혁신성
창업의지	1.000													
창업교육	.169	1.000												
창업프로그램	.079*	.397***	1.000											
전공_사회실무	-.081	.090	-.034	1.000										
전공_디자인	.114	.034	.046	-.77^{7}***	1.000									
전공_식품	-.041	-.187***	-.015	-.404***	-.262***	1.000								
창업교육효과	.504***	.420***	.147	-.031	.062	-.043	1.000							
안전지향	.101	.131**	-.114*	.145**	-.036	-.171**	-.014	1.000						
자율지향	.107	.037	-.088	-.156**	.208***	-.064	-.068	.000	1.000					
사업지향	.548***	.035	.110*	-.143**	-.018	.244***	.402***	.000	.000	1.000				
관리지향	.208***	.111*	.135**	.047	.152**	-.293***	.358***	.000	.000	.000	1.000			
진취성	.126*	.089	.332***	-.067	.103*	-.047	.351***	-.003	.050	.173**	.457***	1.000		
혁신성	.488***	.050	-.124*	-.207***	.186**	.047	.317***	-.014	.036	.445***	.227***	.000	1.000	
위험감수성	.379***	.116*	.128*	-.204***	.184**	.045	.158**	.062	.157**	.451***	-.130**	.000	.000	1.000

주) * p<.10 ** p<.05 *** p<.01

4.2 가설검증

4.2.1 창업교육효과와 창업의지의 t-test

본 연구에서 가설검증을 위해서 한글 SPSS ver. 18.0을 활용하였다.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보일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두 개의 창업관련 변수인 창업교육수강(수강, 미수강)과 창업교육효과(큼, 작음)라는 2개의 변수를 채택하여 각 집단 간 창업의지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이용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Levene의 등분산 가정은 두 집단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F값을 보였으며, 집단 간 차이를 검정하는 t-검정 역시 두 변수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창업교육효과는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1은 채택되었다.

각 집단의 평균 차이는 창업교육 수강 여부에 따른 창업의지의 차이보다는 창업교육효과에 의한 창업의지의 차이가 보다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창업교육 수강 여부보다는 창업교육효과가 창업의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후 가설검정 분석에서는 독립변수로 창업교육효과를 채택하여 분석하고자 하며, 창업교육 수강여부는 통제변수로 채택하여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련성을 분석하는데 설명력을 높이고자 한다.

<표 4> 창업교육 수강 여부와 창업교육효과 집단 간 창업의지 차이 분석

구분	집단1:수강, 교육효과큼		집단2:미수강, 교육효과작음		t	등분산 검정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F
창업교육수강 → 창업의지	.0834	1.04280	-.3387	.72142	2.197**	7.778***
창업교육효과 → 창업의지	.4841	1.01432	-.3852	.80591	6.173***	7.128***

주) * p<.10 ** p<.05 **∗ p<.01

4.2.2 창업교육효과와 창업의지의 회귀분석

창업교육효과와 창업의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고자 한다. 통제변수 '창업교육', 창업프로그램 참여', '전공' 등 3개의 창업의지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모형1에서는 통제변수 '창업교육', '창업프로그램 참여', '전공' 등 3개의 창업의지에 대한 영향력을 'Enter'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모델 적합성은 F=1.711, 유의확률=0.150(p>.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의미한 통제변수를 제거하는 회귀모형인 'Stepwise' 방식으로 재분석 한 결과 '창업교육' 만이 유의한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통제변수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Enter' 방식의 결과를 분석에 이용하고자 한다. 다만 더미변수 '전공_사회실무'는 공차한계가 한계에 도달하여 이 변수는 제거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 창업교육효과와 창업의지의 관계 분석

	모형 1				모형 2			
	B	Beta	t	VIF	B	Beta	t	VIF
(상수)	-.427		-2.198**		.051		.279	
창업교육(有)	.413	.165	1.926*	1.237	-.162	-.065	-.788	1.474
창업프로그램	.018	.009	.107	1.196	.049	.025	.332	1.197
전공-디자인	.238	.113	1.412	1.077	.168	.080	1.134	1.082
전공-식품	.059	.019	.238	1.119	-.029	-.009	-.132	1.122
창업교육효과					.522	.522	6.979***	1.222
F	1.711				11.513***			
R2 (Adj. R2)	.041 (.017)				.263 (.241)			
F 변화량	1.711				48.706***			
Durbin-Watson	1.911							

주) * p<.10 ** p<.05 *** p<.01, 창업교육, 창업프로그램, 전공-디자인, 전공-식품은 더미변수임.

통제변수로만 분석한 모형1의 R2=.041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창업교육효과라는 독립변수가 추가된 모형2의 설명력 R2=0.263으로 매우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창업교육효과는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창업교육효과는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쳐 창업교육효과가 클수록 창업의지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있다. 통제변수를 이용한 창업교육효과와 창업의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에서도 t-test 결과와 같이 창업교육효과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1은 채택되었다.

회귀분석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VIF 값은 모두 10이하 이므로 창업교육효과와 창업의지간의 다중회귀분석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다. Durbin Watson 통계량은 회귀분석 후 잔차의 독립성을 확인하는 값으로 이 통계량이 2에 가까울수록 잔차끼리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911로 잔차 간 상관이 없음도 알 수 있다.

4.2.3 창업교육효과와 창업의지에 대한 경력지향성의 조절효과 분석

<표 6> 창업교육효과와 창업의지에 대한 경력지향성의 조절효과 분석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VIF	분산분석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427	.194		-2.198	.029		F : 1.711 R^2 : .041 Adj. R^2 : .017 F변화량 : 1.711
	창업교육(有)	.413	.214	.165	1.926	.056	1.237	
	창업프로그램	.018	.168	.009	.107	.915	1.196	
	전공-디자인	.238	.169	.113	1.412	.160	1.077	
	전공-식품	.059	.250	.019	.238	.812	1.119	
2	(상수)	.051	.184		.279	.780		F : 11.513*** R^2 : .263 Adj. R^2 : .241 F변화량 : 48.706
	창업교육(有)	-.162	.206	-.065	-.788	.432	1.474	
	창업프로그램	.049	.148	.025	.332	.740	1.197	
	전공-디자인	.168	.149	.080	1.134	.259	1.082	
	전공-식품	-.029	.220	-.009	-.132	.895	1.122	
	창업교육효과	.522	.075	.522	6.979	.000	1.222	
3	(상수)	.034	.165		.205	.838		F : 13.825*** R^2 : .442 Adj. R^2 : .410 F변화량 : 12.576
	창업교육(有)	-.049	.191	-.020	-.257	.798	1.635	
	창업프로그램	.001	.136	.001	.008	.993	1.310	
	전공-디자인	.107	.135	.050	.792	.429	1.142	
	전공-식품	-.257	.211	-.084	-1.217	.225	1.325	
	창업교육효과	.311	.081	.311	3.868	.000	1.824	
	안정지향성	.096	.062	.096	1.531	.128	1.097	
	자율지향성	.113	.062	.113	1.830	.069	1.083	
	사업지향성	.445	.070	.445	6.357	.000	1.376	
	관리지향성	.067	.069	.067	.975	.331	1.325	
4	(상수)	-.108	.168		-.640	.523		F : 11.467*** R^2 : .494 Adj. R^2 :.450 F변화량 : 3.880 D : 2.033
	창업교육(有)	-.020	.191	-.008	-.103	.918	1.754	
	창업프로그램	.003	.135	.001	.022	.983	1.378	
	전공-디자인	.203	.133	.096	1.529	.128	1.199	
	전공-식품	-.246	.206	-.080	-1.192	.235	1.360	
	창업교육효과Ⓐ	.254	.094	.254	2.686	.008	2.692	
	안정지향성Ⓑ	.051	.063	.051	.810	.419	1.192	
	자율지향성Ⓒ	.073	.063	.073	1.160	.248	1.198	
	사업지향성Ⓓ	.482	.069	.482	6.965	.000	1.449	
	관리지향성Ⓔ	.032	.070	.032	.453	.651	1.461	

	상호작용(Ⓐ×Ⓑ)	-.102	.067	-.106	-1.517	.131	1.467
	상호작용(Ⓐ×Ⓒ)	-.198	.057	-.227	-3.492	.001	1.279
	상호작용(Ⓐ×Ⓓ)	.051	.059	.059	.864	.389	1.385
	상호작용(Ⓐ×Ⓔ)	.135	.061	.154	2.222	.028	1.448

주) * p<.10 ** p<.05 *** p<.01 , 종속변수: 창업의지, D: Durbin-Watson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지와 창업교육효과의 관계에서 경력지향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제1모형은 3개의 통제변수의 창업의지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본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제2모형은 통제변수에 의해 통제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창업교육효과의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이다. 제3모형은 조절변수인 경력지향성이 창업의지와 창업교육효과와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질 수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단계이다. 회귀분석에서 조절변수란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효과를 중간에서 조절하는 변수로서 본 연구에서는 경력지향성이 조절변수로서 창업의지에 대한 창업교육효과의 영향력을 중간에서 어느 정도 조절하고 있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조절변수가 투입된 모형 3의 적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3.825, p<.001), 제2모형에 비하여 모형의 설명력인 R2 값이 44.2%로 증가하여 경력지향성이 창업의지에 대한 창업교육효과의 영향력에 조절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경력지향성이 창업교육효과와 창업의지에 대한 조절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경력지향성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자율지향성(t=1.830, p<.01)과 사업지향성(t=6.357, p<.001) 2개의 하위요인 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다. 결국 제3모형에서 보여준 결과는 경력지향성의 하위요인들 중에서 자율지향성과 사업지향성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창업교육효과와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를 통해 가설2-2와 가설 2-3이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가설 2-1과 2-4는 기각되었다.

제4모형은 경력지향성이 창업교육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통해 창업의지에 대한 조절효과를 보이는지를 실증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제4모형의 적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1.467, p<.01), 자율지향성 상호작용(t=-3.492, p<.01)과 사업지향성의 상호작용(t=2.222, p<.05)이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창업교육효과와 경력지향성의 상호작용에 의한 조절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자율지향성은 역방향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으며, 사업지향성은 정방향의 상호작용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가설 3-2와 가설 3-3이 채택되어지며, 가설 3-1과 3-4는 기각되었다. 회귀모형 4개 모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2.4 창업교육효과와 창업의지에 대한 기업가정신의 조절효과 분석

창업교육효과와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기업가정신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제1모형과 제2모형은 앞의 경력지향성 조절효과분석과 동일하며, 제3모형은 조절변수인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와 창업교육효과와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질 수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단계이다. 분석결과 제3모형의 적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9.017, p<.01), 모형의 설명력인 R2 값이 46.5%로 증가하여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와 창업교육효과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업가정신 하위요인 중에서는 혁신성(t=6.497, p<.01)과 위험감수성(t=5.717, p<.01) 2개의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이 창업교육효과와 창업의지에 대한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가설 4-2와 가설 4-3은 채택되었으며, 진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아 가설 4-1은 기가되었다.

제4모형은 기업가정신이 창업교육효과와 상호작용하여 창업의지에 대한 조절효과를 실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제4모형의 적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4.543, p<.01), 혁신성 상호작용(t=1.769, p<.10)이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창업교육효과와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혁신성이 창업교육효과와 상호작용에 의해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검증한 것이다. 이를 통해 창업교육효과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혁신성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라는 가설 5-2는 채택되었다. 하지만 진취성과 위험감수성의 창업교육효과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5-1과 가설 5-3은 기각되었다.

<표 7> 창업교육효과와 창업의지에 대한 기업가정신 조절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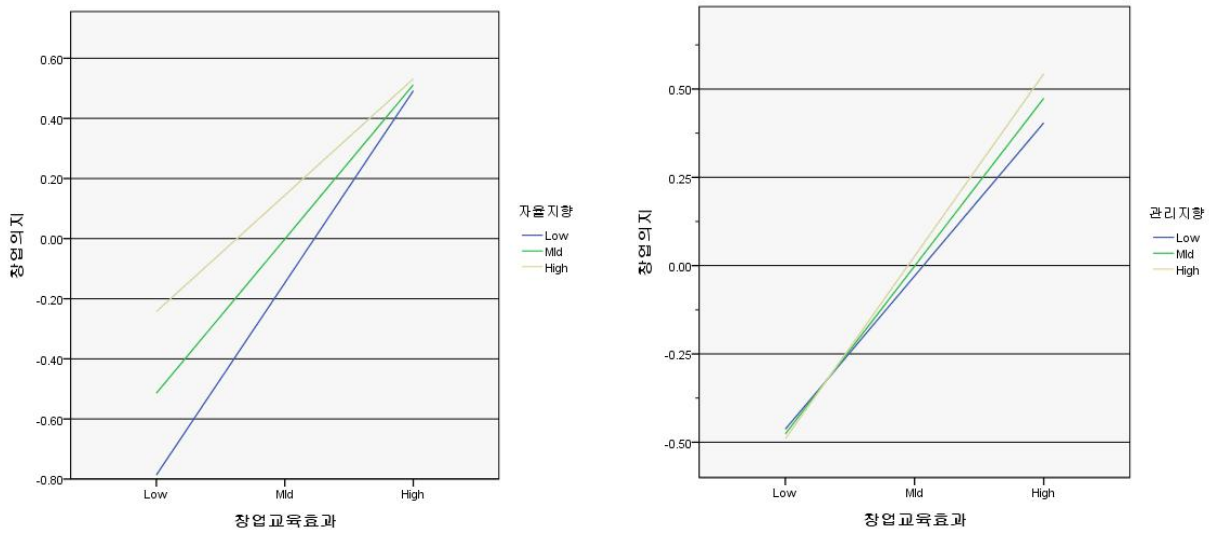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VIF	분산분석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427	.194		-2.198	.029		F : 1.711**
	창업교육(有)	.413	.214	.165	1.926	.056	1.237	R^2 : .041
	창업프로그램	.018	.168	.009	.107	.915	1.196	Adj. R^2 : .017
	전공-디자인	.238	.169	.113	1.412	.160	1.077	F변화량 : 1.711
	전공-식품	.059	.250	.019	.238	.812	1.119	
2	(상수)	.051	.184		.279	.780		F : 11.513***
	창업교육(有)	-.162	.206	-.065	-.788	.432	1.474	R^2 : .263
	창업프로그램	.049	.148	.025	.332	.740	1.197	Adj. R^2 : .241
	전공-디자인	.168	.149	.080	1.134	.259	1.082	F변화량 : 48.706
	전공-식품	-.029	.220	-.009	-.132	.895	1.122	
	창업교육효과	.522	.075	.522	6.979	.000	1.222	
3	(상수)	.171	.156		1.093	.276		F : 19.017***
	창업교육(有)	-.200	.177	-.080	-1.132	.259	1.545	R^2 : .491
	창업프로그램	.144	.135	.072	1.066	.288	1.411	Adj. R^2 : .465
	전공-디자인	-.150	.131	-.071	-1.146	.254	1.197	F변화량 : 23.485
	전공-식품	-.288	.187	-.094	-1.537	.126	1.155	
	창업교육효과	.347	.073	.347	4.775	.000	1.639	
	진취성	-.009	.066	-.009	-.141	.888	1.354	
	혁신성	.409	.063	.409	6.497	.000	1.229	
	위험감수성	.341	.060	.341	5.717	.000	1.105	
4	(상수)	.167	.156		1.069	.287		F : 14.534***
	창업교육(有)	-.234	.177	-.093	-1.320	.189	1.572	R^2 : .508
	창업프로그램	.155	.134	.077	1.153	.251	1.422	Adj. R^2 :.473
	전공-디자인	-.113	.135	-.053	-.835	.405	1.291	F변화량 : 1.804
	전공-식품	-.303	.188	-.099	-1.612	.109	1.179	D : 2.260
	창업교육효과Ⓐ	.313	.079	.313	3.951	.000	1.978	
	진취성Ⓑ	.007	.067	.007	.107	.915	1.396	
	혁신성Ⓒ	.383	.064	.383	5.984	.000	1.286	
	위험감수성Ⓓ	.372	.062	.372	5.978	.000	1.222	
	상호작용(Ⓐ×Ⓑ)	-.011	.068	-.011	-.163	.871	1.453	
	상호작용(Ⓐ×Ⓒ)	.084	.047	.114	1.769	.079	1.308	
	상호작용(Ⓐ×Ⓓ)	-.054	.055	-.067	-.986	.326	1.442	

주) * p<.10 ** p<.05 *** p<.01 , 종속변수: 창업의지, D: Durbin-Watson

4.2.5 창업교육효과와 창업의지에 대한 조절효과 기울기 분석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에 실시하는 상호작용을 평균 중심화하고, 조절변수를 세 집단(Low, MID, High)으로 구분하여 단순 기울기분석(Simple slope analysis, Aiken & West, 1991)을 실시하였다. 단순기울기를 구하기 위하여 연속적 척도를 가진 변인들은 표준화 값인 Z-스코어로 변환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경력지향성의 자율지향성과 관리지향성에 대한 회귀계수의 단순기울기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창업의지와 창업교육효과에 대한 자율지향성의 조절 효과는 창업교육효과가 낮은 집단일수록 크게 나타났으나 창업교육효과가 높은 집단에

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관리지향성의 조절효과는 세 집단 간 기울기의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창업교육효과가 높은 집단에서 관리지향의 조절 효과가 미세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창업의지와 창업교육효과에 대한 경력지향성 조절효과 그래프

V. 결론 및 시사점

현실에서 실업 문제가 크게 부각되어 정부 및 대학 차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생 창업 및 창업교육에 대한 관심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대안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 창업은 남성 위주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여성 기업가 정신을 연구한 결과에서 지적하고 있다. 반면에 대학에서 창업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창업의지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공혜원, 김효선,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교육효과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여자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인 경력지향성과 기업가정신이 창업교육효과와 상호작용하여 창업의지에 대한 조절효과를 실증연구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과 관련된 주요 변수로 창업교육 경험 유무와 창업교육효과를 선택하였으며, 창업교육효과는 창업교육 이후 얻을 수 있는 창업환경 이해, 창업보고서 작성 능력, 마케팅, 재무, 조직인사 등의 실무에서 요구되는 창업지식의 수준으로 조작적 정의하여 실증분석의 변수로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교육과 창업교육효과는 창업의지를 높이는 데 모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창업교육효과에 의한 창업의지의 영향력이 보다 높게 나타나 이후의 관련분석에 주요변수로 이용하였다.

둘째, 여자대학생들이 창업자로 나아가도록 하는 개인적 특성인 경력지향성은 창업교육효과와 창업의지간의 영향력에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경력지향성의 하위요인 중에서 조직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자율지향성'과 자신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 전문지식을 습득하고자 노력하는 성향인 '사업지향성'이 여대생의 창업의지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창업교육효과와 경력지향성의 '자율지향성'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창업의지를 높이는 데 조절효과를 보인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셋째, 기업가의 필수 덕목이라고 하는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여대생들의 기업가정신은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등의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이들 요인은 기존 창업연구에서 자주 인용된 요인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선과 혁신을 모색하는 성향인 '혁신성'과 불확실성을 수용하며 사업기회에 대한 탐험

과 실험을 강조하는 성향인 '위험감수성'에서 창업교육효과와 창업의지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창업교육효과와 기업가정신의 상호작용에 의한 창업의지에 대한 조절효과는 '혁신성'만이 미세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넷째, 회귀 계수의 단순기울기 분석에서 창업의지와 창업교육효과에 대한 '자율지향성'의 조절 효과는 창업교육효과가 낮은 집단일수록 크게 나타났고 교육효과가 높은 집단에서는 차이가 적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연구 결과를 통해 여대생의 창업교육과 창업의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차원의 시사점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창업에 대한 의지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많지만 여대생의 창업교육 경험은 창업의지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창업교육 경험보다는 창업실무지식 능력인 창업교육효과가 보다 창업의지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검증하였다. 따라서 대학에서 진행하는 창업교육에서 이론적 측면 보다는 창업실무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참여적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여대생의 창업의지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개인의 심리행동 특성인 경력지향성과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를 높이고 실제 창업으로 연결되는 결과를 가진다고 한다. 따라서 대학의 창업교육 진행시에 수강학생들의 경력지향성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수강생들이 자신의 창업역량을 스스로 이해하고 적극적인 창업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정부와 대학의 창업지원프로그램에서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하게 된다면 여성의 창업이 더욱 활발해 질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여자 대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기에 성별에 따른 창업의지의 차이에 대한 결과 및 남성과 차별화되는 여성을 위한 전략적 제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창업교육 참여와 창업실무지식에 대한 개인적 견해만으로 창업교육효과라는 주요 변수를 측정하였기에 창업교육 이후 나타나는 만족도나 창업교육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창업교육효과에 포함되지 않아 창업교육의 효과가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한계도 있다.

마지막으로 창업교육 이후 실제 창업으로 연결되는 종단적 창업과정이 연구에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연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설문조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창업교육 이후 실제 기업을 창업하는 과정이 연구에 포함될 경우 창업교육효과를 보다 확실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민석(2012), *창업교육 서비스품질이 교육만족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성일(2007), *관광중소기업 소유경영자의 기업가정신과 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공혜원, 김효선(2018), "개인적 및 맥락적 요인과 여성 기업가정신: 미시적(개인), 중간적(생태계), 거시적(국가) 관점의 다수준 연구", *데이터 기반의 기업가정신 생태계 연구*, 중소벤처기업부, (재)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곽동신(2016), *대학의 창업교육서비스품질이 교육만족과 창업역량,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기인(2019), *대학생 창업교육 수업유형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환(2019), "기업가정신 관점에서 본 한국의 여성 창업 현황 및 시사점", *여성기업가정신 생태계 리뷰*, 중소벤처기업부, (재)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김은경, 김종근(2015), “경력지향성과 노후준비도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6), 27-36.
김종운(2014),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연구”, *벤처창업연구*, 9(1), 79-87.
김진영(2018), “창업생태계 내 위치가 개인과 기업의 기업가 지향성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데이터 기반의 기업가정신 생태계 연구*, 중소벤처기업부, (재)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김홍(2012), “대학생의 창업요인과 창업의지와의 관계 연구”, *벤처창업연구*, 7(1), 263-271.
김홍(2014), “대학생의 직업성격유형이 창업의지 및 직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9(5), 255-265.
남정민, 이환수(2017), “주요 국가의 기업가정신 교육 현황 및 효과 연구”, *벤처창업연구*, 12(6), 111-122.
남혜명(2018), “청년여성취업지원 프로그램 현황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논집*, 29, 89-116.
마종식(2013), *창업교육서비스 품질의 차별적요인이 창업교육의 신뢰 만족도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동건, 최대정(2003), “창업자의 역량평가도구 개발 및 타당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6(2), 61-91.
배병윤, 이주현(2018),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 성별 및 전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3(6), 63-74.
배지은, 한인수, 이필수(2017), “창업 멘토링 기능이 교육만족과 추천의도 그리고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프랜차이즈경영연구*, 8(2), 25-36.
서성열, 김생수, 윤종록(2017), “청년 창업지원시스템이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2017. 8), 421-440.
서정훈(2013),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경력지향성 및 환경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수희(2019), *대학 창업교육 서비스품질의 효과성 분석*,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혜원(2017),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 참여자중심 평가의 적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심완섭, 이은재(2015), “대학생의 온 · 오프라인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학술지 등재지 및 후보지에 게재된 연구를 중심으로-”, *e-비즈니스연구*, 16(4), 371-396.
오영미(2013), *기업가정신 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지선, 김영환 (2016). “한국 기혼여성창업가의 경영방식에 대한 사례연구: 가정과 일 병행전략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38(4), 27-52.
오희화, 조인석(2019), “대학 창업교육 참여자의 기업가정신과 교육만족도가 창업의지에 미치는영향 -가족 지지 조절효과-”, *국제회계연구*, 87, 39-68.
유연호(2009),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경력지향성과 사회문화적 요인 그리고 창업지원프로그램 참여의사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육창환(2014), *창업가의 특성요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상호, 이보람, 김혁주(2016), “경력지향성과 창업의지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1(4), 1-25.
이우진(2013), “대학생의 직업선택 동기가 창업에 대한 자아효능감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8(3), 113-124.
이원준(2016), “대학생의 창업 실행성과 창업 의지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2016. 5), 978-982.
이재석, 이상명(2015),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 *벤처창업연구*, 10(3), 61-74.
이재훈(2013), “대학생 창업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8(2), 63-74.
이정현, 유창호, 박제선(2019), “세무고 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세무회계연구*, 61, 173-195.
임교순, 전인오(2015), “창업지원제도가 잠재적 창업가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1), 422-432.

장성희, 김희자, 반성식(2014), “여성창업가 특성, 조직문화가 기업가정신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생산성논집 (구 생산성연구)*, 28(1), 187-215.

정유선, 정화영(2018), “대학생들의 개인특성, 창업교육, 창업관련지식 및 창업의지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벤처창업연구*, 13(6), 75-87.

정지호(2014), *창업교육이 기업가정신과 창업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영준(2017), “대학창업교육 서비스품질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벤처창업연구*, 12(2), 95-103.

조윤아, 박민규, 문윤걸(2015), “창업교육 전후 창업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1), 433-446.

조휘열(2016),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창업진흥원(2020), *2019년 창업기업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최중석(2017), “팀 학습을 통한 대학생의 창업교육에 있어서 팀원의 창업의지, 다양성 및 조력자의 지원활동이 팀 학습 유효성 및 창업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2(4), 159-174.

추승엽(2019), “기업가정신의 성별 차이 결정요인 탐색 : 사회적 맥락의 조절 역할을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의 기업가정신 생태계 연구*, 중소벤처기업부, (재)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하규수, 서란숙(2009), “대학생의 창업교육 요구도와 창업의지”, *한국벤처창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9. 10)*, 311-337.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

한국창업보육협회(2017), *기술창업기초*, 사단법인 한국창업보육협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기업가정신교육팀(2019), *대학 창업 운영 매뉴얼* 3.0+,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한규동(2019), “벤처기업 창업가의 특성과 경영전략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4(6), 29-43.

홍정표(2014), *대학생의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jzen, I and M. Fishbein(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Bolton, D. L., and M. D. Lane(2012), “Individual entrepreneurial orientation: Development of a measurement instrument”, *Education + Training*, 54(2/3), 219-233.

Farr-Wharton, R, and Y. Brunetto(2007), “Women entrepreneurs, opportunity recognition and government - sponsored business networks”, *A social capital perspective Women in Management Review,* 22(3), 187-207.

McClelland, D. C.(1961). *The achieving Ssciety*, Prinston, NJ: Van Nostrand.

Miller, D.(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770-791.

Naguib, R, and D. Jamali(2015), “Female entrepreneurship in the UAE : A multi-level integrative lens Gender in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30(2), 135-161.

The effect of start-up education on female college students' startup intention

Lee, Seong-Ju[1)] · Chae, Byung-Wan[2)]

Abstract

Even a lot of research has shown about entrepreneurship, there are still some limitations to apply to women. It was limited because it has been illuminated by general points of view. In this situation, it is needed to study more about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ship wil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experience and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the will of entrepreneurship.

First,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to verify that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which is the ability of entrepreneurship knowledge, can contribute to raising the will of entrepreneurship. Therefore, in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nducted by universities, operating as a participatory program that can enhance entrepreneurship skills rather than theoretical aspects will contribute to enhancing the willingness of female college students to start up. Second, career orientation and entrepreneurship, which ar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psychological behavior, have the result of raising the will to start a business and linking it to actual start-up.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students conduct their entrepreneurship comprehension and connect themselves to active entrepreneurship activities by conducting a diagnosis of the career orientation and entrepreneurship of students during the start-up education of the university. Third, women's entrepreneurship will become more active in government, and university entrepreneurship support programs expanded to target women's college students.

Keywords: *startup education, startup intention, career orientation, Entrepreneurship, Female college students*

1) First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t. of Business, Suwon women's university
2) Co-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t. of Business, Suwon women's university

제 1 저 자 소 개

■ 이 성 주(LEE, Seong-Ju, kyh6812@swc.ac.kr)
■ 수원여자대학교 비즈니스과 부교수
<관심분야> 경영학원론, 창업실무, 전산회계, 지표분석을 통한 전문대학교육현황(재정)

공 동 저 자 소 개

■ 채 병 완(Chae, Byung-Wan, cwb1222@swc.ac.kr)
■ 수원여자대학교 비즈니스과 부교수
<관심분야> 조세법, 원가회계, 재산세법, 지방세법, 기업합병의 조세효과에 관한 연구